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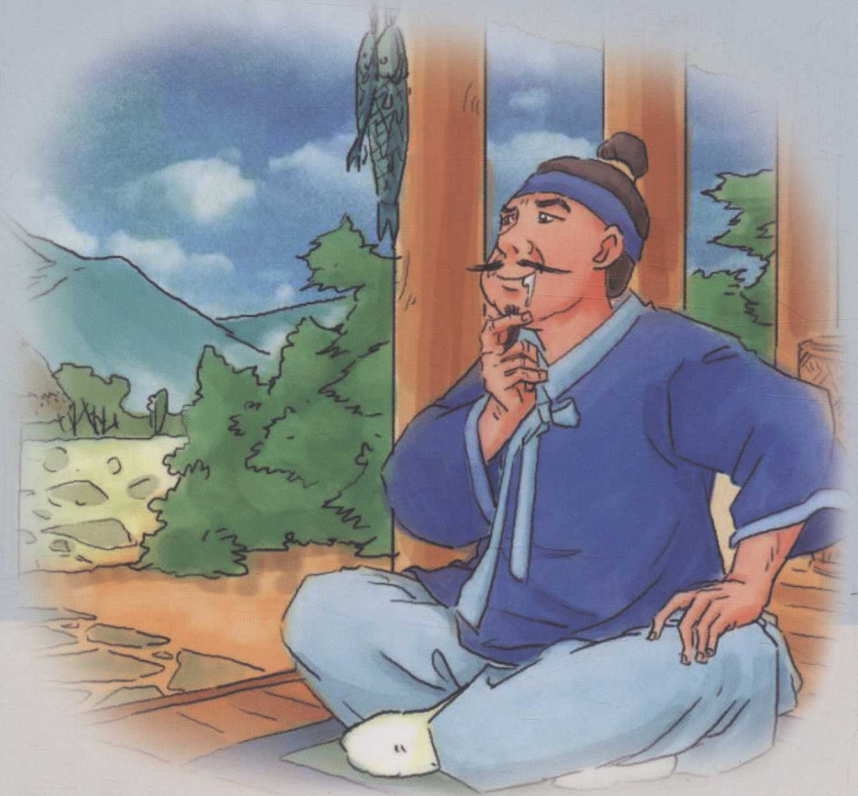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수전노

리용득 수집정리



효녕민족출판사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수전노

리홍득 수집정리



요녕민족출판사

© 李龙得 2018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守财奴：朝鲜文 / 李龙得收集整理. —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8.12

(中国朝鲜族民间故事丛书)

ISBN 978-7-5497-1944-0

I. ①守… II. ①李… III. ①朝鲜族 — 民间故事 — 作品集 — 中国 — 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8)第250288号

守财奴

SHOUCAIN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辽宁鼎籍数码科技有限公司

幅 面 尺 寸：170mm×240mm

印 张：15

字 数：250千字

印 数：1-1000

出版 时间：2018年12月第1版

印刷 时间：2018年12月第1次印刷

责 任 编 辑：金顺玉

封 面 设 计：杜 江

责 任 校 对：边京爱

标准书号：ISBN 978-7-5497-1944-0

定 价：30.00元

网 址：www.lnmzcs.com

邮购热线：024-23284335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차례

엮음값음편

| | |
|------------------------|----|
| 구명은인 | 1 |
| 은혜 값은 간부 | 8 |
| 적선지가는 필유여경 | 18 |
| 적악하면 무자라 | 24 |
| 까치가 울면 기쁜 일이 나진다 | 27 |

지혜와 재치편

| | |
|-------------------------|----|
| 며느리 간통 루명을 벗겨준 어사 | 30 |
| 고을의 명관 우복룡 | 40 |
| 물가재 50마리 | 48 |
| 임금의 수청을 거절한 촌녀인 | 50 |
| 부부싸움에 끼여든 방랑객 | 52 |
| 군식솔을 쫓아준 판서 | 54 |
| 평생 소원이 한 순간의 처사로 | 59 |
| 숙종대왕과 젊은 녀인 | 61 |
| 꿈으로 얻은 '범의 꾸중' | 63 |
| 다섯 처녀의 의량과 목사의 덕행 | 65 |
| 정승을 골려주고 사위가 되다 | 70 |

2 수전노

| | |
|-------------------------------|-----|
| 림기응변과 넓은 도량 | 75 |
| 해박한 소년부사 | 79 |
| 왕후로 된 시골소녀 | 88 |
| 백년대계는 언제나 미리 | 93 |
| 뒤를 보며 범을 잡은 최광 | 95 |
|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 | 100 |
| 매의 값 | 102 |
| 외모만 보고 취하다간 실패한다 | 104 |
| 돈으로도 슬기로움은 사지 못한다 | 108 |
| 안해의 눈물 | 110 |
| 포수총각의 선택 | 113 |
| 말수 적은 안해 | 114 |
| 헛소문 놓아 며느리를 개심 | 116 |
| 된옥질로 물에 빠진 남편을 구원 | 117 |
| 어머니의 비밀 | 119 |
| 절 약 | 121 |
| 화를 잘 내는 부인 | 123 |
| 시어머니를 혼내운 며느리 | 124 |
| 세상살인 자기 할 탓에 달렸다 | 126 |
| 첫번째 친구의 깨달음 | 127 |
| 총명한 딸 | 129 |
| 어사를 알아본 일곱살 소녀 | 132 |
| 아버지 왼췌를 갇아 호랑이를 찍어잡은 소년 | 134 |
| 왕자 선택 시험 | 136 |
| 친구를 어사로 발탁시킨 기지 | 138 |
| ‘명도사’ | 144 |
| 명어사 박문수가 도적을 잡다 | 147 |
| 개를 태워 살인자를 나포 | 149 |
| 박문수가 술 도적을 잡다 | 151 |

| | |
|--------------------------------------|-----|
| 장승으로 종이 도적을 사출 | 152 |
| 전답은 농부에게 복은 부처님께 | 154 |
| 땅세로 도적을 잡다 | 155 |
| 성명을 물어 돈을 찾다 | 156 |
| 침착하게 도적을 잡다 | 157 |
| 피로 아들을 찾아주다 | 159 |
| 보석 도적 잡은 박문수 | 160 |
| 울음소리에서 살인범을 짚어내다 | 162 |
| 도사의 허울을 까밝히다 | 164 |
| 부처로 가장해 도적을 잡다 | 166 |
| 달음박질로 강도를 잡아내다 | 168 |
| 옷통을 벗겨놓고 도적을 사출 | 170 |
| 노루를 심판하여 살인범을 잡아내다 | 171 |
| 도적을 용서해준 주인 | 173 |
| 비단필을 형클어 도적을 잡다 | 175 |
| 닭의 배를 갈라 도적을 잡은 고을원 | 176 |
| 게시문을 써 말도적을 붙잡았다 | 177 |
| 손보게 해 도적잡다 | 179 |
| 안해의 종아리를 쳐 도적을 개심 | 180 |
| 파리로 소도적을 사출한 고을원 | 181 |
| 살인은 왼손잡이의 소행 | 182 |
| 은전 백냥 | 184 |
| 편지로 묶은 빛을 받아내다 | 186 |
| 한끼 잘 먹고 도적을 잡았다 | 187 |
| 어린 소년 지혜롭게 도적을 붙잡다 | 188 |
| 자기 혀를 잘라낸 놈을 잡아낸 황소 | 190 |
| 남을 위해 도적질하여 복을 받다 | 192 |
| 천벌 받아 죽은 도적놈들과 그들의 죽음을 까밝힌 명판결 | 194 |

풍자조소편

수전노..... 196

고자대감을 놀러먹은 시골총각..... 204

로인을 하대하면 코가 깨진다..... 207

글도적 잡은 김삿갓..... 211

구두쇠부자를 우려낸 김삿갓 213

“차돌배기 수탉 한마리!”..... 215

축객당한 아침쟁이 선비..... 217

흥진비래 219

구관이 신관보다 낮다 221

교만의 말 한마디 신세 망친다..... 223

“저 닭들을 엇바꿔 타고 가려네” 225

녀자를 박대하다 이마빼기 터졌다 226

누에고치 참봉..... 231

린색한 친구..... 233

늙은 농부와 젊은 선비 234

선비의 그림 팔기 235

엮음값음편



구명은인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년 전인 고려 고종년간 어느 달밝은 8월 한가
위날 저녁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표표히 의관을 정제하고 보내온 승교에 몸을 싣고 집
을 나서는 호부시랑(당시 상서륙부의 하나) 허홍의 머리 속에서는 갖가지
의혹이 서려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다.

“오늘따라 어이하여 총랑장(상서륙부를 총관하는 차관) 임연어른이 나
를 집에 부르시는 것일가?” 그것도 자기보다 자기 안해가 일부러 기어이 부
르는 일이기에 오늘저녁 가내외로 아무리 요긴한 일이 있더라도 꼭 왕립해
주십사고 두세번 전같이 오다못해 승교까지 띄워왔으니 말이다.

허홍이나 임연이나 모두 나라 조정에서 큰 권력을 쥔 대목들이여서 절
코 데면데면한 사이는 아닌데다 가택마저 왕궁에서 서로 멀지 않은 이웃이
나 다름없다지만 임연으로 놓고 보면 자기보다 한등대 높은 상관이어서 평



시에 왕래가 거의 없다싶이 되어있는 터, 그러니까 그 안쪽부인들에 대해서는 실로 서로가 껌껌부지 모르는 터인 것이다.

그런데 총랑장께서는 오늘저녁 각별히 자기 부인이 보자고 해서 부른다니 이 아니 기이한 일인가?

정말 허흥으로 놓고 말하면 처음 당하는 일로서 사람이 살아가노라니 세상 별일도 다 보는 셈이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굴리는 새 어느덧 가마는 총랑장덕에 이르렀다.

날아갈 듯 으리으리한 금전옥루 임연의 덕에 이르자 어느덧 임연과 한녀인이 나와 아주 정중하게 그를 맞아들이는데 녀인으로 놓고 보면 사십 좌우의 청초하고 정숙한 옥반화용의 그 자태 아직은 피여지지 않은 함박꽃 같다고나 할가?

이윽고 정갈한 객방에 좌정하자 그 부인이 다시 나와 인사를 올리는데 “모처럼 찾아주신 구명은인에게 문안을 드리옵니다.”

“아니 구명은인이라니?”

까담모를 진지한 인사를 받는 허흥 호부시랑은 실로 무슨 감투끈인지 알 수가 없어 어안만 병병하다.

이 때 사람 좋은 총랑장 임연이 허허 웃으며

“호부시랑, 우리 집사람이 그대를 구명은인이라 부르시는 사연 인제는 아마도 까맣게 잊으셨겠지요?” 하고 넌지시 묻는다.

“총랑장님, 덕의 부인님께서 하찮은 저더러 구명은인이라시니 저로선 그저 황공하옵기 그지없으나 사람을 대해서도 너무나 경홀히 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임연은 더욱더 소리높여 웃는다. 그 부인이 있다가 “소침이 어이 호부시랑님을 경홀히 보아 언감생심 철없는 란설을 발하오리까? 이것은 정녕 일언반구 가식이 없는 실말이웨다.”

“아니 실말씀이라니요?”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호부시랑님께서 한창 독서에 열중하시는 8월 한가위날 저녁, 바로 그 때 호부시랑님께서서는 분별없이 열장

토담을 넘어 뛰어든 한 방탕녀를 옹고 명철한 사리로써 꾸짖고 타매하여 끝내 바른길로 구해주시지 않았나이까?”

“그렇소. 바로 20년 전의 그 방탕무례하던 녀인이 바로 우리 집 이 사람이였다오.”

“지금으로부터 바로 20년 전의 방탕녀가?”

말이 예까지 이르자 허홍의 머리 속에서는 그 때 일이 마치 어제의 일인양 번개같이 떠올려졌다.

오오, 그 때도 8월 한가위날, 두리둥실 만월이 하늘 창공에 매달린 채 휘황한 빛을 온 누리에 짝 채웠는데 그날 내가 방안에서 글을 읽다가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다 휘황한 달빛에 현혹이 되어 부지중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았었지. 그 때는 그저 글 읽기가 무료하면 언제나 거문고를 가져다 놓고 줄을 고르며 타군 하였었지.

그 때마다 그저 생각없이 돼가는 대로 뜯는 노래가

물레야 돌아라 빙빙빙 돌아라
 남의 짐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거문고소리는 교교한 월색하에 사면팔방으로 은은히 퍼져나갔다.

그 때 나는 이렇게 한곡조 뜯고는 다시 글읽기를 계속하다가 피곤하면 또 거문고를 뜯군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난데없는 귀를 치는 소리 쿵! 틀림없이 담벽을 뛰어넘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가!

내가 읽던 글을 멈추고 앞을 힐끗 바라보았더니 달 아래 나무그늘 밑에 의포단장한 요염한 녀인이 서있었다!

내가 도정신해 내다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다가왔다.

월광에 비끼는 그토록 요염하고 아름다운 녀인, 그저 범인 여자면 어찌한길 너머 되는 담벽을 뛰어넘어 들어올 수 있을까?

예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온몸에 소름이 쭉 끼



쳤다.

“너, 너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나 생글생글 웃으며 여전히 다가오는 녀인,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사람중에도 머리태를 길게 땡아늘인 처녀!

내가 고성으로 소리치니 내 앞에 와서 딱 멈춰서서 고개 숙이는 녀인, 허나 나의 두려움은 여전하여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거든 속히 물러가고 그러나 사람, 아니 녀인일진대 사내대장부 혼자 있는 곳에 이리 요사스럽게 나타나는 리유가 무엇인지 어서 말하라!”

그제야 비로소 처녀는 약간 얼굴을 들며

“소저는 귀신이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처녀로소이다.”

“이웃집에 사는 처녀라?”

“네 그러하나이다.”

“이웃집이라면 바로 아무 대감네 댁이겠는데?”

“바로 그런 줄로 아뢰옵니다.”

“헌데 명문거족 대감댁 규수라면 야밤 월장하여 사내 홀로 있는 곳에 오는 리유가 무엇인가?”

“도련님을 너무 놀라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녀는 수일 전부터 도련님의 글읽는 소리와 거문고 소리를 남몰래 엿듣고…더구나 거문고 소리의 그렇듯 높고 낮고 우아하고 가늘고 때로는 현하지세로 은은히 흘러 그 누구를 원망하는 듯 그 누구를 사모하는 듯함에 자연 이 마음 설레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흠양하던 나머지 오늘 토담까지 뛰어넘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오니 청컨대 도련님께서도 방금 뜯던 거문고를 한번 더 뜯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 이진 실로 구면은 고사하고 백년지기와도 같이 천연덕스럽게 굴기까지 않는가!

그 통에 나는 더욱 아니꼬와났다.

“그래 소저는 글을 배운 일이 있는가?”

“예, 부모님 덕에 글은 성자나 명자 쓰게 쬐은 읽었습니다만 녀자가 글을 읽어선 룡문에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떠엮은 지도 벌써 오래되엮사옵니다.”

“아무튼 글을 읽었다면 남녀칠세 부동석을 알텐데, 더구나 점잖은 명문거족 집안에서 생장한 소저로서 그래 그만한 레절도 모르는가? 그러니 오늘저녁 이것이 그 어떤 해괴망칙 외람한 짓인가?!”

하지만 여전히 그린 듯 서있는 처녀.

“보아하니 도련님도 나도 모두가 때한창 아질자질 피어나는 호방한 시절인데 구태여 너무 몰인정스레 굴 일까지야 있습니까?”

“뭘, 뭘 너무 몰인정스레 군다?”

“하긴, 마음껏 청춘의 한때를 누린들 구애될 일이 무엇이겠나이까?”

그 말에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혔다.

실로 이 소저는 막되여도 결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비록 아래웃집 사이라지만 처음 상봉하는 사이에, 더구나 소저의 몸으로 진심갈력 글공부하는 남자에게 이같이 방자한 말까지 함부로 지껄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꺽 소리쳤다.

“이 요망한 계집아, 어서 썩 돌아가지를 못해?!”

그러나 여전히 련정에 불타 서있는 처녀.

“이 막된 년, 그래 네 년은 또 어느 누구의 앞날 전정을 망치려고 이 발광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그제는 할 수 없는지 긴 한숨을 내뿜으며 뒤로 슬슬 물러갔다.

그러나 나는 이에서 직성이 다 풀리지를 않아서 그렇게 그 소저를 훌훌히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꺽 내지른 소리가

“여보시오, 소저!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이리 마루로 썩 올라오시오!” 했다.

소저는 나의 무서운 서슬에 가던 걸음 되돌아와 가리키는 대로 마루

우에 올라섰다.

“소저의 그 방자, 방탕, 무례함을 보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소. 소저가 다시 이런 헛되고 부질없는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소저의 종아리를 때려보내야겠으니 어서 종아리를 내대오.”

그 말이 소저에게는 실로 이외의 날벼락이겠으나 그렇다고 거절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막무가내 종아리 맞을 태세로 고개만 푹 숙이었다.

나는 물푸레 나무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죽어라고 짹! 후려갈겼다.

“아!”

소저는 소리와 함께 두다리를 감싸쥐고 폴짝 주저앉았다.

“도련님, 내 이제부터 회개하여 본분을 꼭 지켜가겠사오니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좋소. 오늘은 이만해 두겠으니 어서 가오.”

어느덧 그것은 지금 20년 전 일이었다.

그날 그런 일이 있고서는 감감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애된 소저, 그 소저가 바로 나라 총랑장 임연의 안해가 되었던 말인가?

아아, 세상일은 실로 진땀키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가 이렇게 몽중몽몽한 깊은 추억의 심연에 잠겨있는데 총랑장의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바로 20년 전 호부상서님의 그런 호된 질책과 매와 고충이 없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천하의 휘절음녀가 되어 한낱 가문을 더럽히고 술한 사내들과 나라 동량 지재들을 망치고 결과에는 자신을 죽임이나 다름없는 천녀로 매몰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의 그런 엄한 교육이 있었음으로 하여 깨닫는 바가 커 그 때로부터 다시 가문수학을 계속하고 침선방적에 힘을 쓰는 등으로 수신수학을 잘 함으로써 드디어 나라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금전옥루 호반호식의 총랑장의 어엿한 부인이 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소. 그러니 어찌 호부시랑을 구명은인이라 이르지 않을 수 있겠소?”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호부시랑님의 도고한 탄핵의 깊은 덕택이오니

호부시랑님이야말로 진정 저의 구명은인이시지요.”

그 말에 허홍은 못내 감격해마지않았다.

“기실 부인님께서 명문가 귀부인이 되신 이 모든 은행이 천은에 기인된 것이건만 공연히 이 소인을 그렇게까지 떠올려 존대해주니 실로 미처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윽고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허홍으로서는 난생 듣도 보도 못 하던, 오히려 국면을 무색하게 할 그런 푸짐한 상이었다.

이날 저녁 임연과 그의 안해가 은인에게 괴여올리는 술과 안주는 밤 깊도록 그칠 줄 모르고 어육에 묻힌 그들의 즐거움 여취여광 날을 지새우니 이려고 보면 이 어찌 기이한 인연이라 아니하겠는가?

이로부터 그들 두 가정은 세상 무렵없이 환난을 함께 하며 아주 잘 지내갔다고 한다.

은혜 깊은 간부

리조 초기의 일이였다. 함경도 한 고을에 리억수란 젊은 원님 하나가 부임되어왔다.

한날 세상물정에 익숙치 못한 서생으로 방금 과거급제한 덕에 무명고을 성주로 부임된 그는 정사에 모든 정력을 몰부어갔다.

어느 여름날 물이 난 보통의복에다 꾸레 감발을 하고 활과 전통을 둘러멘 그는 혈혈단신으로 치벽한 심산유곡으로 들어갔다. 상하 좌우로 줄느런하던 라졸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혼자 나선 것은 자유분방한 소일로 머리도 쉬울겸 담력과 슬기를 동시에 닦자는 데서였다.

헌데 그 날따라 꿩과 들새 따위는 뒤전으로 노루시슴 큰 것만을 골라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니 한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구멍을 막고 말았다.

“에라, 인젠 어서 돌아가야겠군.”

급기야 귀로에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사위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 새까매지고 지척도 분간키 어려웠다. 연신 꼬르락거리는 허기진 배를 달래며 걸음만을 다우쳤지만 그의 눈앞에는 눈익은 고을길 대신 낮선 숲만 나타났다. 그는 얼마 못가서 왕청 같은 초면의 열호동마을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하, 이 일을 어이 하나?”

그는 한동안 펄쩍 주저앉아 애꿎은 담배만 뽁뽁 빨았다.

“이렇게 된 바 하곤 이 마을에 신세를 지고 갈 수 밖에 없군.”

그는 마을에서도 펍 동뜨게 앉은 한 초막집 앞에 이르렀다. 저녁식사가 한창인 그 집에서 고기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다.

“주인장 계십니까?”

부엌문이 활짝 열리며 광솔불을 추켜든 청초한 녀인이 살짝 나왔다.

“저, 누구신지요?”

“저, 지나가던 과객올시다. 주인장 계신가요?”

“예. 바깥량반은 요 산너머 포수막 지키러 가신 지 수삼일 되고 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억수 원님은 돌아섰다. 남의 유부녀 혼자 있는 집에서 어차피 부자연한 신세를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윽도록 억수 원님을 눈빛질해보던 녀인이 입을 열었다.

“아이참, 보아하니 먼곳에서 오시는 도련님 같은데 이렇게 날까지 새까매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신다구 그래요? 잠깐 들어오셔서 요기라도 좀 하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공연히 더 사양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녀인의 꿀 같은 마음씨에 끌려 들어서니 걸보기와는 달리 집안은 분통속처럼 깨끗하고 아늑했다.

녀인은 잡아끌다싶이 하며 살짝 눈웃음을 쳤다. 녀인의 권고에 못이겨 억수는 끝내 온돌방 우에 좌정했다. 뒤미처 억수는 뛰는 가슴 누르며 물었다.

“저, 이곳에서 고을까지 얼마나 멍니까?”

“호, 고을요? 여기는 고을의 제일 끝머리니깐 고을까지 가자면 하루는 장히 걸어야 하겠지요.”

“하루나요?”

“그래요. 곧게 산밭을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되지만 달구지길을 따라 걷자면 한나절을 걸린다고들 하던데요. 그래서 여긴 고을 다녀온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아, 그렇구만요.”

부인의 말에 억수는 어지간히 놀랐다. 그리고 보면 자기는 고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산골 한끝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부인은 귀밀로 지은 밥이나마 그릇 높게 담아놓고 맛갈진 고기국까지



찰찰 넘치게 떠서 받쳐놓았다.

“거친 밥 없는 찬이라도 맘껏 잡수세요.”

“저, 함께 드시지요.”

“저야 남편에게 저녁밥을 갖다드리고 와서 천천히 먹지요.”

억수는 몹시 시장했던 차라 한그릇 밥과 국을 게 눈 감추듯 비워버렸다. 배가 부르고 나니 자연 식곤증이 확 물러오며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버렸다.

어느 때가 되었는지 억수가 눈을 뜨고 보니 밤하늘은 대낮처럼 월광이 들이비치는 단칸집 아래목에 속옷 채로 누워있는 여인이 보였다. 꽃 같은 얼굴, 봉긋한 젓가슴, 하야말쑥한 살결 모두가 도무지 막치기 시골녀인 답지 않은 선녀 같은 여인이었다. 억수의 젊은 피가 굵이굵이 요동을 쳤다. 손은 어느새 여인의 두 어깨를 쓸어만지고 있었다. 그 여인은 기다린 듯이 억수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바로 이 때 문밖에서 한 장정의 그림자가 언뜰거렸다. 동정을 엿보며 사실을 확인한 괴한은 드디어 문가를 슬며시 떠나더니 다시 걸음을 재우쳐 산너머 포수막으로 쏜살같이 내달았다.

“여보게 돌쇠, 자네 집에 큰일이 생겼네 어서 가보게.”

숨이 턱에 닿아 헉헉거리며 일러바치는 방금 전의 그 괴한이다.

“아니, 큰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포수막 장정이 되물었다.

“글쎄 어서 가보면 알걸세!”

그 말이 아주 유심함에 집을 향해 곧추 내달아 돌쇠가 집문가에 와보니 집안에서 간드러진 안해의 웃음소리와 웬 사나이의 웅글진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자야밤중 웬놈의 간부가 뛰어들어 침상일몽이냐?!”

무작정 멍석말듯 문을 떴고 짓쳐들어난 돌쇠의 두눈에는 황황 불꽃이 튕겼다.

“어서 불을 켜!”

녀편네가 바들바들 떨며 기여일어나 광솔에 불을 달았는데 한쪽 구석에는 더벅머리 원님이 삼수갑산 물방아대가리처럼 머리를 조아린 채 별별